

귀향

차가 개똥쇠가 살던 뽕나무 고개를 지날 무렵부터 신창수의 가슴은 금의 환향이라는 문자와는 다른 감개로 설렸다. 차가 달리는 대로 자기와 고향 마을 사이의 공간이 단축되어 가는 거와 비레나 하듯 삼십 년이라는 시간이 자취를 감추는 것 같았다.

버린다는 말 그대로의 심정으로 고향을 등진 지 삼십 년—— 국회의원 출마를 할 때조차 연상을 하지 않았던 고향—— 그토록 잊어버린 고향, 삼십 년 전에 고향과 함께 버린 자기보다도 여섯 해나 순위인 아내가 검은 그림자같이 가려 있을 뿐 누구 하나 애뜻이 기다릴 사람도 없는 고향이었다.

그러나 국회 의원 XX 광업 회사 사장 신창수의 명암(明暗)이 짙은 생애에 있어, 그래도 고향은 소박한 추억의 땅이요, 자기의 출분(出奔)의 원인이 된 과실도 때(時)가 깨끗이 지워 버린 지금에 와서는 언제든지 그를 안아 줄 일종의 휴식처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어느 청년 단체의 초빙을 받아 강연차로 고향 마을에서 오십 리 가량 되는 XX시에 왔던 김에 평생의 큰 숙제였던 삼십 년이나 버려둔 부모의 산소(공동 묘지 한구석에 있는)에 손질을 할 양으로 돌아가

는 고향이었다.

일개 갱부(坑夫)로부터 거만의 산을 이룬 신창수의 오랜 풍상으로 굳어 버린 감정 속에 이제 삼십 년 전 ‘분들이’의 소박한 야심과 자량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조석 연기조차 초초한 한촌(寒村), 그 두메 사람들의 고급 자동차에 몸을 싣고 돌아온 22 관의 거구(巨軀) 신사 ‘분들이’를 맞을 때의 놀라움과 부러움이 교차된 우둔한 그러나 그리운 얼굴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신창수의 얼굴에는 만족의 빛이 감돌았다. 그가 의장(議場)에서 그 박력 있는 웅변으로 반대당을 여지없이 분쇄하였을 때, 혹은 외국 고객과 유리한 거래를 맺었을 때에 느끼는 그런 만족과는 전혀 다른, 말하자면 셋대 마을 분들이가 뽕나무 고개 개똥쇠를 이겨낸, 그런 소박한 만족감이었다.

차는 보리밭 사이를 쾌속도로 달린다. 도로수 백양나무에 검자죽 빛 새잎이 트고, 오월의 바람이 보드랍게 자란 보리밭을 물결을 일으키며 쓸어 갔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인지 보따리를 허리에 맨 험수룩한 아이들이 대여섯, 촌길에서는 보지 못하는 고급 승용차에 눈이 휘둥그래지며 자동차 뒤를 쫓다가 길 한가운데 서서 떠나가는 차 뒤에다 두 손으로 외잡한 욕을 해 붙였다.

창 밖으로 뒤를 돌아본 신창수는 이 아이들 틈에 개똥쇠며 쌍가마며 만경이…… 그런 옛동무들이 끼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와 같은 연배, 즉 오십 전후의 어지간한 늙은이로는 친구들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과부집 월천집의 딸 추련이——물동이를 일 때에는 다홍 댕기를 드린 그 삼단 같은 무거운 머리채 끝을 입에 물던 고운 추련이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이 과부의 딸이 어스름에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일 때의 맵시가 셋대 분들의 눈에 몹시나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 사건의 시초였던 것

이다.

여섯 해나 손위인 아주마씨 같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열여덟 살 난 창수는 누가 보아도 늙름한 두메에서는 볼 수 없는 청년이었다. 분들이 추련이의 치마를 벗겼다는등, 안 벗겼다는등 속덕속덕하는 판에 과부 월천집이 사람 죽일 소리라고 펄펄 뛰어날쳐 도리어 소문을 퍼뜨려 버렸던 것이다.

분들이로 말하면 추련이의 손을 한 번 쥐어 보았다가 보기 좋게 따귀를 맞은 것밖에 없었지만 소문이 그렇게 돌고 보니 어쩐지 추련이가 자기 것이나 된 것 같은 그런 가까움을 느꼈던 것이다.

과부집 등쌀이 무서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뜻대로 되는 것 없는 따분한 두메가 싫증이 나서 뛰어나온 후 삼십 년, 잊어버렸던 옛일을 기억 속에서 추려 내니, 추련이는 '분들이' 시절의 애인으로 지금도 고향에만 가면 살짝이 고운 그 새하얀 이마 너머로 쌍극이 추파를 던져 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추련이의 눈이 컸던가 작았던가? 코는? 입은? 하면 그것은 완전히 기억에서 떨어져 버리고 있었다.

신창수는 공연히 거구를 흔들고 몸을 고쳐 앉았다.

고향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삭이 피기 시작한 넓은 들판에는 호수면같이 지나가는 구름의 그림자가 떨어지기도 하고 바람에 푸른 물결이 일기도 하였다. 촌곡은 대풍이요, 농촌은 밭두렁에 피어 흐드러진 짙레꽃 향기에 태평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창수는 눈을 뜨자 잠깐 자기의 위치를 의아해 했다.

거미줄이 주렁주렁 매어달린 천장, 무슨 도료(塗料)나 칠한 듯이 손때가 짜르르 흐르는 나무 유경에 비스듬히 걸린 등잔, 얼룩이 진 벽,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은 아주 이 방에 배어 버린 취기인가, 윗목에 착 개어 놓은 때가 곁어 붙은 개떡 같은 침구에서인가?

자기가 가지고 온 담요 아래 낡아빠진 등매를 깐 것은 그대로 자기에 게 한껏 하는 대접인 모양이다.

그는 진기한 것이나 보는 것처럼 천장에 매어달린 거미줄이 토벽에 뚫은 들창에서 비쳐 드는 아침 햇살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거리는 것을 쳐다보았다.

햇살은 또 천장에 붙은 그늘음에도 가 닿아 그 세세한 그늘음의 그림자가 산 것이나처럼 아롱아롱 흔들리는 것이었다.

찢어지는 것 같은 날카로운 새소리가 들려왔다.

아 쪽박새!

그 새 이름을 문득 상기하자, 그것은 신창수의 가슴에 어느 연상을 불렀다.

옛날에 들은 쪽박새의 전설이 완전히 아몰어 버린 목은 상처 같은 버린 아내를 연상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 광업 회사 사장 신창수는 자기가 1억만의 재산가라는 것을 상기하였다.

“얼마쯤 주지…….”

그는 머리를 들려는 양심을 이렇게 처리해 버렸다.

“일어나셨습니까?”

비서가 외쪽문을 열고 들어와 윗목에 꿇어앉는다.

반쯤 열린 외쪽문 밖에 어젯밤에는 보지 못했던 새잎이 튼 감나무가 보였다. 쪽박새의 울음소리는 그 가지에서 오는 모양이었다.

“손님네 일어났어라우?”

흰 바지저고리에 검정 조끼를 입은 삼십 가량 되는 주인이 문 옆에 와서 허리를 구부렸다.

신창수는 기지개를 한번 켜 후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할 일이 가득한 것 같았으나 무엇부터 시작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실상 산역(山役) 외에는 그리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느니만큼 계획을 세우거나 사무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삼십 년 만에 보는 고향 마을은 좀더 넓고 좀더 초라해졌을 뿐 탕자나무 울타리가 있는 정 침지네 집 앞에는 옛날대로 돼지울이 있고, 귀뜰이네 집 들담도 옛날 그대로였다. 다만 윗말에 낫설은 집이 더러 보이고, 신창수가 살던 오막살이 뒤 대나무 숲이 좀더 우거졌다.

그러나 사는 사람들은 옛사람들이 아니고 신창수 자신도 아주 잊어버려진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옛저녁에 말썸허신 개똥쇠 말이라우. 물어보닝께 뽕나무 고개 강 침지드만이라우.”

주인이 손을 부비며 입을 열었다.

“응, 그럼 만경이는?”

“죽었는개비드라우.”

“허어, 아무럿던 옛날이니깐.”

신창수는 한숨을 쉬었다.

“귀뜰이는?”

“그기 뉘군가, 알아볼 수 없어라우.”

주인은 자기 탓이나 되는 것처럼 또 손을 부빈다.

신창수는 쓴 입맛을 다셨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성, 그러한 것도 여기와서는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셋대 분들의 의 환향이라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상, 고향은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땅이 아닌가?

어제 황혼 가까이 마을에 도착하자 옛친구를 찾았으나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실 성조차 잊어버리고 개똥쇠니 귀뜰이니 쌍가마니 하는 어릴 때의 이름만을 어렵듯이 기억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 내기는 좀 어려운 일이었다.

셋대 분들이가 굉장한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문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전에 없던 사건으로 파문을 던졌을 뿐 아무런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었다.

비서가 교섭하여 산역이 끝날 때까지 묵게 된 이 숙소의 주인도,

자기를 성공해서 돌아온 셋대 분들이로 인정하였던들 좀더 존경과 친애를 가졌을 것이요, 이처럼 속이 보이는 비굴한 태도는 취하지 않으리…… 하고 신창수는 적막한 기분으로,

“어디 촌놈이 눈이 번쩍힐 만하게 숙박비를 주어나 볼까.”

일종의 잔인한 복수 같은 쾌감을 느끼며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젯밤 일이 머리를 스쳤다.

생각하면, 첫째 신창수 자신이 분들이가 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는 갑자기 벌인 술자리에 어울릴 수가 없었다. 웃음은 부자연하였고 농담은 상대방이 아부를 강제하는 것 같은 무거운 의식을 가지며, 신창수는 또 한편 때아닌 향연에 배를 두들기는 고향 사람들이 ‘신창수’를 알았던들 그들은 그토록 시간을 아끼는 ‘인물’ 신창수의 자기들을 위한 참석에 좀더 사의(謝意)를 가졌으리…… 그런 오만한 생각도 가져지는 것이었다.

고향 사람들은 ‘분들이’를 잊어버리고 ‘신창수’를 알지 못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야릇한 심정이었다. 자기를 ‘국회 의원 신창수’로만 대접한다면 섭섭한 일이었고, ‘셋터 분들이’로만 취급한다면, 좀 욕된 일인 것 같았다. 창수는 담배를 하나 빼어 물었으나 피울 염이 나지 않았다.

다만 묘연한 옛친구들의 행방 중에 가장 가깝게 지내던 개똥쇠가 강 침지라고 불리며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모양인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그래 강 침진 몇 형제나 두었나?”

“오 형제 두었어라우. 셋이는 농사를 짓는데라우만, 하나는 순경을 땡기지라우. 망녕인 읍내 제재소에 가 있는개비라우.”

“강 침지보구 좀 오랬나?”

“예, 풍병으로 걸음을 잘 못 걷는데라우. 선상님이 오셨다님께 아주 반가서 기양 아침밥 먹구 온다고 히였지라우.”

주인은 또 꾸벅꾸벅 절을 하고 허리를 구부린 채 물러갔다.

신창수는 말없이 담배에 불을 대기고 서너 모금을 뺀 다음 비서가 산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수배를 했다는 보고를 들은 후 일어서서 바깥으로 나갔다.

새벽마다 거적 자리 위에서 마음껏 기지개를 켜 후, 눈곱이 낀 눈을 부비며 정낭(화장실)에를 갔던 아득한 기억이 되돌아왔다.

파란 부침(波瀾浮沈)이 심한 그의 생애는 시간의 밀도(密度)가 여느 사람보다 좀 짙었다. 그는 일 세기나 전 사람을 상기하듯 그 때의 자기 자신은 그려 보며 무의식중에 싸리담에 기대 놓은 작대기를 잡아 들었다. 구렁이가 서까래에 걸려 있기가 일쑤라, 정낭엘 가려면 작대기를 들고 가던 그 때의 그 버릇이었다.

정낭은 어느 촌집이나처럼 싸리문 밖 파밭 옆에 있었다. 몇 년이나 잊지 않았는지 재가 되어 버린 것같이 폭삭해진 지붕에 박넝쿨이 얽히고, 어젯밤 핀 박꽃이 아직 벌린 채 있다. 창수는 작대기를 짚은 채 그 앞에 서서 고향 산천에 다시 눈을 던졌다.

이삭이 피기 시작한 들판은 이슬을 머금고 백녹색으로 서려 안개가 차츰 걷혀져 가는 마을에는 아침 연기가 아늑하고 아카시아나무 숲 옆을 이쪽으로 소를 모는 목동은 옛날의 자기같이 이슬 맺힌 풀을 맨발로 밟는다.

동녘 하늘에 가로 떠 있던 구름을 찬란하게 채색하며 오만한 태양이 불쑥 솟아올랐다. 순간, 넓은 들판에는 황홀한 자연의 향연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주인집 아낙넌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파가 아욱이 담긴 다래끼를 끼고 풀길을 걸어오다가 창수를 보자 걸음을 멈추고 잠깐 망설인 후 큰 결단이나 하듯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그 앞을 지나 싸리문 안으로 사라졌다. 남녀 내외가 심했던 옛풍속을 지금도 지키는 모양이었다.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나, 노파의 크게 등을 기워 붙인 낡은 적삼이 창수의 시선을 붙들었다.

뽕나무 고개 개똥쇠 —— 강 침지는 창수가 아직 아침상을 물리기 전에 찾아왔다.

읍내 제재소에 다닌다는 막내아들이 집에 다니러 왔던 길이라 하여 그 아들의 부축을 받고 온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즉시는 말문이 터지지 않아 서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래도 강 침지 쪽에서는 심부름을 갔던 사람의 허풍도 섞인 전갈을 반신 반의나마 듣고 왔던 것이나 창수 쪽에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었던 것이다. 개똥쇠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개똥쇠는 창수의 둘도 없는 친구요 또 적수였다. 창수의 ‘분들이’ 시대의 추억은 이 사람 없이 있을 수가 없었다.

강심터 열녀비 옆에 밤마다 도깨비불이 나타나 마을 사람을 놀라게 한 것도 그들 둘의 장난이요, 박 서방네 암탉이 구렁이 알을 품었던 것도 그들 둘의 수작이었다.

땅딸보나마 기골이 센 창수 못지않게 담이 크고 날쌌던 개똥쇠, 그 개똥쇠가 탄력이 없는 피부가 뿌석한 얼굴을 하고 지팡이에 의지하며 눈이 부신 것같이 눈을 껌벅껌벅하며 서 있는 것이다. 그래도 그 표정이 없는 뿌석한 얼굴을 약간 찌푸린 것은 웃으려고 한 것인가?

창수는 이 노쇠한 옛친구를 보자 모든 감정이 중화(中和)나 된 듯 잠시 감각을 잃었다.

그는 멈춰던 수저를 상 위에 놓고 일어서

“아 —— 이거.”

입안에서 우물거렸다. 삼십 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처음 한다는 인사가 이런 말이였다.

“참 ——.”

개똥쇠 역시 울상을 하며 하는 대꾸다. 신창수는 뜰로 내려가 옛친구의 손을 잡아 올렸다.

그는 모든 사업가와 마찬가지로 냉혹하고 타산적인 반면 또 모든 정계인(政界人)과 같이 격동적이고 현세적(衞世的)이었다. 털어 말하

면 촌부자(村夫子) 강 침지의 손을 정답게 잡고 방으로 이끈 것은 성공해 돌아온 분들이 아니고 항상 쓰는 정책이 어느덧 슬픈 습성으로 굳어 버린 능란한 외교가 '신창수 국회 의원'이었다. 그는 이 보잘것없이 쇠락한 늙은 촌야에게 '개똥쇠'를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박한 촌옹은 감격에 넘쳐 부들부들 떨면서 창수가 인도하는 대로 방 안에 올라가 앉았다.

그는 창수의 정다운 태도에 처음의 스스럼이 가셔진 모양으로
“몇 년 만잉게. 참 오래두 살 일이라우.”

하고 눈을 또 껌벅거린다. 창수는 양담뱃갑을 그에게 내어밀어 껴련을 권하며

“아들들을 잘 둔 모양이두만.”

하고 자기도 담배에 불을 붙였다.

“별로 잘 둔 것은 없어라우. 그저 그럭저럭 지 앞은 꾸러 나가는데 비라우.”

강 침지는 그리 겸손도 하지 않고 대답을 하고

“여기 있게 되었어라우?”

하고 물었다.

“그럴까 보이.”

강 침지는 떨리는 손으로 무엇을 잡아당기는 시늉을 하며

“추하지마안 우리 집으로 원기시게라우. 죽기 전에 친구를 또 만나쓰닝게 짧은 동안이나마아 같이 있게 히어라우.”

하는 말에 다정한 진실이 서려 있었다.

“뭘 폐스럽게. 잠깐 동안인데 아무데서나 묵지.”

신창수는 부드럽게 거절하고 투박한 손으로 두둑한 턱을 쓰다듬었다.

“오매, 장 서방네에 좀 가보시지라우. 계란이 있능가 알아보지라우.”

주인의 음성인 듯한 거친 남자 소리가 들렸다. 강 침지는 그 표정이 없는 얼굴에 주름을 잡으며

“남면집이 아들이 바뿌구마안.”
하고 빈정대는 듯이 한입귀를 쳐뜨린다.

“그래 폐를 끼치는 모양이야, 하…….”

신창수는 뇌락하게 웃고 받았다. 이 호탈한 웃음소리는 창수의 버릇이었으나 강 침지는 달리 풀었는지 갑자기 음성을 낮추고 짓궂은 말을 할 때의 옛 버릇 그대로 눈썹을 치켜 올리며,

“하필 남면집이 집이 맞인가만?”
하고 정성드못 남은 누런 이빨을 드러낸다. 이쪽은 말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남면집이라니?”

“허, 참 잘 모를 테지…… 아 그 추련이 말이랑게.”

꺄속말같이 속삭거리는 말투가 아주 벗조로 변했다. 강 침지는 분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을 상기하자 갑자기 두 사람 사이의 사회적 거리가 견혀지는 것 같은 친밀감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추련이…….?”

강 침지는 공통된 화제를 찾은 것을 기뻐나 하듯,

“추련이두 자네 때문에 한동안 구설이 많더니마안 필경 암내 고 생원네 삼취택으로 시집가서 살다가 늙은 영감이 죽으닝게로 점잖안 전설 메뉴리 틈에서 지내기 어려웠던개벼. 자기가 난 아들만 데부고 친정 동네로 이사와 살아온 것이여.”

“…….”

“늙은 영감이 젊은 각씨헌데 의처증(疑妻症)을 부렸다등게 —— 허 허 그럴 때마다 자네를 들먹들먹히었는개벼.”

창수는 처음 듣는 후일담이었다.

“자넨 추련이 때문에 성공을 한 셈이고 —— 나무가 자랄라든 거름이 있어야 허어…….”

강 침지는 한숨을 쉬고

“남면집이야 그래도 아들이나 두었재. 감내집이야말로오…….”

감내서 시집을 와서 감내집이라고 불리던 창수의 아내—— 신창수는 한 들이곶으로 고배를 비우는 심경으로 다 타지도 않은 담배를 무쇠같이 찌든 늦재떨이에 부벼 끄고 자기 쪽에서 말을 재촉했다.

“어떻게 됐나?”

“감내집이한테 자네도 좀 못할 일을 하였어. 자넬 키우다시피 한 아내가 어떻게? 자네가 버리고 간 후 고생하였지.”

“…….”

“자네도 못할 일을 다 하였어.”

“…….”

“작년이었는데개벼. 장 서방네 쇠꼴을 비러 갔다가아 독사헌데 물러서…….”

신창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고쳐 앉고 있었다.

“곁에 사람이 없었는데로. 언제 숨이 졌는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헤헤…… 안주가 시원찮아서라우.”

주인이 빠드렁니를 드러내며 부탁했던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글쎬에 참말 가고 싶거든 내가 업고 가지라우.”

강 침지의 아들은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부축했던 팔을 빼었다.

“글씨 등에 업히어 보시지라우.”

하고 넓적한 등판을 내민다. 효자인 모양이다.

강 침지는 헐떡거리면서도 고개를 흔들고 다시 아들의 어깨에 몸을 의지하며 발을 떼어놓는다.

공동 묘지로 가는 고갯길이었다. 비가 오면 범벅이 되고 날이 개면 먼지가 이는 진흙탕, 그래도 여름 한철이라, 명아주며 육모초 패랭이—— 들풀이 무성했다.

신창수는 아무리 말려도 자기를 따라 나선 강 침지 옆을 묵묵히 걷고 있었다.

조금 전에 들은 강 침지의 이야기가 귀에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았다.

기획 매진 투쟁 성공——이것이 신창수의 생애였다. 투쟁을 할 때에는 물론 상대방의 중상도 했고 모함도 했었다. 사기에 가까운 행동도 무수히 있었고 무도한 짓도 수없이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었다. 고민도 초조도 숙려도 사업인으로서의 그를 괴롭혔을 따름이었던 것이다.

그가 버린 여자는 아내인 감내집이와 추련이뿐은 물론 아니다. 관계한 여자들을 헤인다면 두 손가락이 넘는다. 버린 여자들의 훗일 때문에 마음을 괴롭힌 일은 일찍이 없다. 그러나 부모의 무덤을 찾는 이 쓸쓸한 고갯길에서 신창수의 가슴에는 여태까지 몰랐던——후회나 자책과는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적요(寂寥)가 끝없이 일어나 가득히 서려 가는 것이었다.

어스름 달이 비낀 사시나무 가지가 늘어진 우물가에서 새하얀 고운 이맛전을 숙인 애련한 추련이——그로 인하여 난 고약한 소문 까닭에 그런 늙은 영감의 삼취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추련이는 보기 좋게 뺨을 갈겨 붙였을망정 늙은 영감에 염증이 날 적마다 늪늪한 ‘분들이’를 그렸는지 모를 일이다.

어쩌면 그런 착도(錯倒)와 기만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늙은 남편을 섬기는 추련이의 단 하나의 남모르는 비밀적인 위로가 아니었을까?

그는 아침에 싸리문 앞에서 본 초라한 그 노파를 추련이라고 생각하기는 싫었다. 창수는 속으로 탄식하고 발에 걸리는 돌맹이를 비켜 걸었다.

오월의 태양 아래 윤이 흐르는 푸른 풀을 입은 높고 낮은 무덤이 가까워졌다. 제일 높은 언덕 가까이 희끗희끗 보이는 사람들은 비서

가 산 산역꾼들인 모양이다.

창수의 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거 이것이야.”

갑자기 강 침지가 팔을 끈다. 때도 잘 입히지 않은 납작한 무덤 앞이다.

“이것이 응? 감내집이의…….”

창수는 발을 멈추고 무덤을 내려다보았다. 뽀뽀풀이 난 그 땅 아래에 사람이 들어 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꼭이라도 한 번 해 주랑게. 영혼이라도 한이 풀리게에…….”

강 침지가 중얼거린다. 그는 의분과 반감을 느낀 모양이었다. 공연히 침을 뱉었다.

창수가 자기의 통곡 소리를 어느 한편에 듣는 것 같은 느낌에 놀리며 못생겼다는 생각 이외에 아무런 구체(具體)를 갖추지 않은 아내의 얼굴을 그려 보았다.

여름이면 마당에 깐 멍석 위에서 옆에서 곤히 잠든 자기를 위하여 모기를 쫓아가며 식구들의 옷을 다리던 아내, 밥을 풀 때면 부엌문 앞에서 손짓을 해 불러들여 누룽지를 주던 아내, 나이를 먹어 갈수록 어린 남편을 어려워하던 아내 ——

“아부지 업히시기라우.”

강 침지의 아들은 이번에는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어린애나처럼 늙은 아버지를 성큼 업고 훌몸같이 걸어간다. 강 침지는 겸연쩍은 듯이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나 역시 어린애나처럼 아들의 등에 몸을 맡겼다.

창수는 자기의 아들들을 상기하였다. 늘씬한 몸매에 해사한 용모, 고도한 교양, 세련된 사교술 —— 신 사장은 자제를 잘 두었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들들 ——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렇게 소박하고 솔직한 부자지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목이 바른 투박하고 우둔한 강 침지의 아들이 탐날 일은 천무 만무 하였으나 가난한 촌로야 강 침지의 처지도 아주 멸시해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았다.

실상 군때가 묻은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고무신을 끌고 온 강 침지는 처음의 스스럼이 가시자 신창수의 물샘틈없는 차림새라든가 비굴하리만큼 공손한 비서의 태도라든가 창수가 타고 온 고급 자동차라든가 그런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실감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인가? 혹은 자기의 분(分)에 아주 안주하고 있는 까닭인가? 하여튼 창수는 이 병든 촌야 위에 높이 있는 자기를 의심치는 아니하였으나, 자기의 모든 성공, 재력, 명성 같은 것이 점점 퇴색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의식 밑에 스며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잔뜩 잡아당긴 동아줄이 갑자기 늦추어져서 엉덩방아를 찧는 것 같은 그런 공허감이었다.

길이 지나온 쪽으로 꺾여 감내집이의 무덤이 먼 시야에 들었다. 순간, 신창수는 모든 것이 — 성공, 명성에의 야망과 노력 같은 것이, 아니 사는 것 그 자체가 이 초조한 서글픈 무덤을 위한 부질없는 가련한 서곡(序曲)인 것만 같았다. 그는 자꾸만 눌러 내리는 무거운 상념을 흔들어 떨어뜨리려고나 하듯 머리를 흔들고 걸음을 빨리 했다.

(1952. 6. 29.)